

도시의 쫓 너머로 마주하는 '無等'

오는 31일까지 국윤미술관 조근호 기획초대전

‘무등산’ 소재로 풀어낸 ‘몽치산수’ 등 20점 선포 도시·자연 공존 지역성 담아, 화면 속 공간 확장도

도시와 삶의 공간을 그려내며 대중들에 희망을 전하는 조근호 작가가 ‘무등산’을 소재로 새로운 작품 전시를 열고 있다.

이달 31일까지 국윤미술관 제2전시실에서 작가의 신작인 ‘몽치산수’ 20점이 선보여진다.

전시에서 주목할 부분은 새로운 소재인 ‘무등산’이다.

전시명은 작품 명제인 ‘몽치산수’를 그대로 사용했다. 몽치산수의 모태가 바로 무등산인 것.

“몽치는 덩어리감과 무게감, 부피감, 몽롱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저에게 무등산이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신작은 작가만의 고유적인 모던한 색깔과 형태 표현을 유지한다. 작가는 시리즈로 연작한 ‘도시의 창’에서 이제는 그 창 너머로 마주하는 무등산의 모습을 표현했다.

작품은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지역성을 담아낸다. 화면 속 공간의 확장으로 작가의 고민과 변화 또한 느낄 수 있다. 엄마 품과 같은 무등산의 친근하고 포근함이 그만의 독자적인 조형세계로 담겼다. 그 안에서 관객들의 지친 일상에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2020년 선보인 ‘도시의 창’과 ‘춘

풍’, ‘비’ 연작은 자연과 도시와 일상을 다시점으로 관조하는 작가의 이즈음 경향을 두루 아우른다. ‘몽치산수’도 그 연속선상에 있다. 도시와 자연, 일상과 심상, 가시적인 세상과 사유의 세계가 재해석, 각색돼 다시 한덩이로 통합됐다.

특히 지난해 작업실을 위층으로 옮기면서 조망시점이 높아져 무등산을 더욱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풍경은 작가에게 매일같이 생생한 실경과 영감을 선사해준다.

창밖으로 내다 보이는 무등산과 그 아래 도시풍경이 하나로 연결돼 시간대와 날씨에 따라 다른 모습을 펼쳐주니 분석과 재구성, 통합의 회화 탐구에는 더없이 좋은 실경이 된다는 것.

“얼마 전까지 계속해 온 ‘도시의 창’ 연작이 안팎을 오가는 소통의 의미였다면, ‘몽치산수’는 같은 공간을 무엇을 통하지 않고 바로 보는 것이죠.”

이전 작업 대부분이 대상의 조형적 분석과 내적 침잠을 통한 심상적 풍경이었다면, 이번 작품은 창 너머로 마주하는 무등산을 직관하며 그 기운과 품세를 여러 유형으로 모아 낸 결과물이다.



조근호 작 '몽치산수' <국윤미술관 제공>

그의 회화에서 각색, 재구성된 형상과 더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색채다. 자유롭고 거친 필획 위주였던 초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정제되고 단순화된 도상과 색면 처리가 두드러졌었기 때문이다.

작가는 서로 대비되는 원색과, 동색 계열이더라도 미묘한 차이를 지닌 채색들, 그 원색조와 무채색의 조화를 중히 여긴다. ‘도시의 창’이나 ‘몽치산수’에서도 무채색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오방색을 염두에 둔 ‘몽치산수’ 색면 구성에서 검정은 덩어리감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통색상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순도를 조절하고, 여러 번 얹어 덧칠해 진득하게 우러나는 오방 색채를

만들어 왔다. 그런 색채 구성에서 검정색의 배치는 전체 화면의 균형과 조화를 조절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에 따라 현장 개최와 전시 영상이 함께 진행된다. 온라인 전시는 유튜브 및 SNS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조근호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북 도립미술관, 신세계 갤러리, 갤러리 아지오 등에서 26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2002 제5회 광주 신세계 미술상을 수상했으며 한국미술대전 심사위원, 한국미술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선과색, 한국미술협회, 한국전업미술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명진기자

‘죽순밭에서’ 낭송 노강자씨 대상

본사 후원, 제13회 빛고를 전국 시낭송경연대회 성료

제13회 빛고를 전국 시낭송경연대회가 지난 23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광주미디어센터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광주시인협회가 주최하고 광주문인협회와 전남도문인협회, 국제펜광주지회위원회, 광주시, 광주매일신문이 후원한 행사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29명의 전국 시낭송가들이 참여한 본선대회에서 문병만 시인의 ‘죽순밭에서’ 시를 낭송한 노강자(광주)씨가 대상을 차지했다.

독창적인 해석과 분위기 있는 목소리, 배경 음악, 적절한 퍼포먼스가 결합



돼 최고의 낭송을 선사했다는 심사위원의 평을 받았다.

그의 ▲금상 김상순(대구) ▲은상 박복숙(광주) ▲동상 이순필(대구), 박희도(여수) 등이 수상했다. /최명진기자

안방에서 즐기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오는 27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연 영상 공개

‘2021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공연 영상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오는 27일 공개된다.

공연은 지난 19-20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남구 통기타 거리, 사직공원 양광정·전망타워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역 통기타 밴드 21팀이 클래식·가요·윌드팝·어쿠스틱재즈·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였다.

남구 통기타 거리 라이브 카페에서 열린 19일 공연은 7080 추억의 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건반싱어 강숙향의

‘Fly to the moon’, 관악기 2인조(정남호·최진국)의 ‘무시로’, 버드나무 팀의 ‘사노라변’ 등 공연이 펼쳐졌다.

20일 공연은 사직공원 양광정과 사직공원 전망타워에서 지역 공연단체 11팀의 창작곡 무대로 채웠다. 자연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인디언 수나의 ‘내 가슴에 달이 있다’와 인디밴드 우물 안 개구리의 ‘슈퍼스타’ 등 무대가 이어졌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명진기자

2021 광주 옥외광고대상전 성료

‘2021 제16회 광주옥외광고대상전’이 지난 21-2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

이번 행사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광주시옥외광고협회가 주관했으며, 행정안전부·광주시교육청·광주디자인진흥원·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가 후원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광주옥외광고대상전’은 옥외 광고인들과 일반 시민, 어린이 및 대학생이 참여하는 전국 공모전이다.

전시회에는 일반 시민이 참여한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수상작 1점, ‘제14회 동심에서 바라본 어린이 예쁜 간판 그림 그리기 공모전’ 수상작 40여점, 옥외광고인 창작 모형간판 13점, 대학생 창작 간판디자인 16점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다. /최명진기자

본 대회 공모전에서는 ‘바른정(정)옥점’을 출품한 내담기획(대표 전진)이 영예의 대상(광주시장상)을 차지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상수(사)광주시옥외광고협회장은 “아름다운 간판 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우리 지역의 문화와 아이디어를 접목한 우수 창작 광고물을 적극 발굴해 건전한 간판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빛고를 문화를 열다...시대를 보다’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등서 지역 11개 극단 참여 소극장 축제

연극과 무용극 등 수준 높은 다양한 작품을 광주지역 소극장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가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화원(ACI)은 오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ACC 어린이극장 등 광주지역 10개 소극장에서 제24회 광주소극장축제를 개최한다.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와 지역공연예술 활성화에 위해 지난해에 이어 (사)한국소극장협회 광주지회와 손잡

고 마련한 행사다.

이번 광주소극장축제엔 연극, 무용, 국악 등 지역 11개 극단의 작품 11편이 무대에 오른다.

축제의 시작은 ‘아트컬처너랑나랑’이 열린다. 연극 ‘마요네즈’를 통해 엄마와 딸의 묵은 갈등과 화해를 무대에 풀어 놓는다. 오는 26-27일 예린소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이어 ‘극단 진달래 피네’의 ‘안녕 여보’ (29-30일, 문예정터), ‘극단 청춘’의

‘마지막 20분 동안 말하다’ (29-30일, 예술극장 통)가 관객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테이올직업교육연구소’는 오보레무용극 ‘종이 한 장으로 떠나는 여행’ (30-31일, 지니아트홀)을 공연한다.

‘푸른연극마을’의 ‘HELLO! 셰익스피어’ (31일-11월1일, 씨어터연바람)는 셰익스피어 작품 중 명작을 바탕으로 한다. 춤, 랩, 국악 등 다양한 장르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해학적이면서 풍자적

인 언어와 영상물을 조합, 새로운 연극을 선보인다.

ACC 어린이 창작극 공연으로 이번 축제에 참여한 ‘극단 파랑새’의 아동극 ‘용감한 탭티’는 오는 30일 ACC 어린이극장에서 펼쳐진다.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아빠의 엉뚱하고도 용감한 여정이야기를 들려준다.

11월엔 ‘극단 토박이’의 ‘꽃이여 바람이여’ (3-4일, 민들레소극장), ‘극단 시민’의 ‘어느 그날’ (5-6일, 씨어터연바람), ‘유쾌한상상’의 ‘내 아내와 결혼해 주세요’ (5-6일, 기분좋은극장), ‘하늘 땅두드림’의 ‘타무흥취나라사’ (6일, 광주아트홀)를 즐길 수 있다.

공연 입장권은 1만원부터 2만원까지 공연별로 상이하다. 문의 광주소극장협회 (062-222-7008). /최명진기자

광주 대인동의 문화공간 김넛과

카페 식음료, 카페갤러리, 아트상품 전시 & 판매

아트호텔 전객실 회화전시 / 장기숙박할인(음식조리가가능)
지하갤러리(55평), 2층(75평) 전시, 상설공연, 도서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음악콘서트(저녁 7시 30분)
최대 100여명 사용가능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52-2번지
전화번호 : 062-229-3355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줄어듭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PC 모두를 위한 듀얼 USB 메모리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